

Market Index / 30일

코스피지수 ▼	2080.27 -12.42	코스닥지수 ▼	655.04 -3.26	유가(WTI, 달러) ▼	55.54 -0.27	환율(원)	1USD 100¥	1188.54 1091.85	1147.66 1054.31	1EUR 1CNY	1324.06 173.69	1272.40 157.15
---------	-------------------	---------	-----------------	---------------	----------------	-------	--------------	--------------------	--------------------	--------------	-------------------	-------------------

감귤APC 주52시간 근무 제외 '마지막 카드'

제주·지역농협 건의문 채택... 국회·여야 4당 찾아 호소 "11-1월 집중 출하기 유통·인력난·농가소득 감소" 주장

11월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가는 물론 유통현장에서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늦은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감귤 품질이 떨어져 농가의 소득감소가 이어지는 데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면서 인력 확충과 함께 유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 관계자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농림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실무협약에도 진척도가 미진함에 따라 이들의 행보가 올해 감귤산업의 운명과 직결하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 전문농협 조합장)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위원장 면담과 함께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APC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내 23개 지역농협 가운데 제주시축

협, 서귀포시축협, 양농농협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곳이 제주농협과 함께 건의문을 채택, 국회에 호소하며 실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APC는 농업인이 피팜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해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농산물 생산의 연결선상에 있다"며 "제주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과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해 주52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 제외)'에 APC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몰리는 감귤의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일 평균 3500~4500t 가량이 집중 처리돼 APC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함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초과근무수당 등 월 300~4000만원을 받던 숙련 인력이 월 200만원 이하로 줄며 인력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숙련 인력 충원으로 상품화비율도 하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사)제주감귤연합회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위원장 면담과 함께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APC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집중 출하기 선과가 늦어지면서 부패와 발생으로 농가소득이 줄고, 유통선진화를 위해 시설된 APC의 역할도 예전 소규모 작목반 형태로 회귀하는 등 그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가격조정을 위한 농협의 계통출하는 물론 추가인력 충원을 위한 농가의 추가 비용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 적용시 기존 인력의 1.5~2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로 농가소득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APC 24개소를 통해 처리한 2018년산 감귤물량은 9만2402

t이며 이 가운데 노지감귤은 64.5%인 5만9725t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 출하비율은 80.0%로 절대적이다. 이 기간에 일평균 4000t 내외의 물량에 대한 집중처리로 APC가 24시간 가동됐다.

내년 1월 제주지역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APC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미 시행중인 제주시농협·감귤농협·제주축협 등 3곳에서 50인 이상~150인 미만 사업장인 19개 지역농협이 추가된다. 고산농협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MSCI지수보다 종목 주식

영업일·외국인 수급 변화 주목해야

오는 11월 27일 MSCI지수 정기변경이 실시된다. 실제 MSCI측 종목변경 공지는 11월 8일 새벽에 이뤄지며 26일에는 증가를 기준으로 편입 결과에 지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에는 지난 5월과 8월에 적용되지 않았던 중국 A주 중형주 편입이 최초로 진행되며, 기존 대형주(8월)와 중형주 모두 지수 편입비율이 20%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A주의 지수 편입비율은 상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 2차에 걸친 리밸런싱에서 기여도가 높았던 사우디 편입이 8월 종료됐으며 한국 EM 내 비중 축소는 -0.1% 정도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WORLD 대비 한국 중형주의 지수 회복이 크게 낮았기 때문에 구성종목수와 정기변경에 따른 충격도 각각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최근 신라전, 더존비즈온,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변동으로 편입률 비중도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지수 산정일이 23일로 지정될 경우 기존 편출 1순위로 꼽히던 신라전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편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대북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대신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 이번 11월 MSCI지수 변경은 지수 변동성보다는 종목변경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1800억대 외국인 투자 매도액 국내증시 소화 가능 10월 영업일 가운데 지수산정 기준 편입여부 촉각

EM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 집행이 지수 변경 하루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지난 5월과 8월 변경시에도 하루에 집중된 거래량 이후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이번에도 단기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1월 리밸런싱의 양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밸런싱에 따른 과거 사례를 보면 관련 종목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금액은 1800억원 정도로 예상, 이는 국내증시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거래량으로 파악된다.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수산정 기준일이 10월 18일부터 22일이 될 경우 신라전과 셀트리온제약이 편출되고 케이엠더블유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23일이 될 경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신라전, 셀트리온제약이 편출되고 케이엠더블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기변경에서는 지수 전체의 영향력보다 지수산정 기준일이 어느 영업일로 결정이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 예상됐던 종목 편출입 양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11월 정기변경 종목 편출입을 결정하는 지수산정 기준일은 10월 마지막 영업일 10일 중 랜덤으로 결정된다. 지수 산정일이 22일 이전으로 지정될 경우 MSCI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도내 기업 체감경기 5개월 하향곡선

10월 제주 업황BSI 60 40개월째 기준치 미달

제주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다.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냉랭한 상태다.

3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도내 기업들의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0으로 전월 대비 5p 하락했다. 지난 5월 76을 기록한 이후 5개월째 하향세다.

특히 업황BSI의 경우, 2016년 7월 100을 찍은 이래 현재까지 40개월

연속 기준치(100 기준)를 밑돌고 있는 데다 2년 연속 80선마저 무너지며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다.

11월 업황전망BSI도 56으로 전월 대비 4p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0월 업황 및 11월 업황전망이 어둡다. 여기에 10월중 매출 BSI도 66으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11월 전망은 62로 4p 내려앉았다. 11월 자금사정전망BSI도 전월보다 6p하락하며 67로 나쁘다.

10월 제주지역 조사대상 300업체 가운데 응답한 238개 업체(제조업 30·비제조업 208)의 경영에로서향은 내수부진(16.8%), 인력난·인건비 상승(15.1%), 경쟁심화(14.7%) 등의 순이다. 백금탁기자

"체험하며 배우는 제주마을로 떠나요"

내달 2일 에코파티 개최 유·초등 대상 교육여행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제주 에코파티'가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 2일 제주시 유수암리와 서귀포시 신홍2리, 신홍리 총 3곳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생 등 290여명을 대상으로 에코파티를 개최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의 마을체험과 생태자원 및 마을공동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행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유수암리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5시)에서는 항몽유적지 역사탐방, 목공체험 등이 진행된다.

신홍리(동백마을)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2시)에서는 비누 만들기 체험, 동백비빔밥 시식 등이 마련된다. 에코파티가 끝난 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마을 버스킹 공연도 개최될 예정이다.

신홍리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2시)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길 견학과 짚줄농기 등이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외 교육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해 지역관광 상품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회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회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 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 750㎡ 5억
- 해안동 생관야(목장) 맹지 28,842㎡ 6억
-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 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접 168㎡ 3억

- 매월수신봉자수지인 카베동점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억 원
- 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 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 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 원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축화,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flower.com